

함평, 도지재생 통해 월야면에 새 숨 불어넣다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선정...사업비 250억 확보

‘의병 고장’ 역사적 정체성·빛그린산단 입지 활용 극대화

함평군 월야면이 ‘달의 고장, 의로움을 품은 월야(月也)’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특화재생)’에 선정돼 250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9년까지 월야면의 상징인 ‘달빛’과 의병 역사자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화 거점 조성, 달이 내린 생활환경 조성, 달빛을 품은 상권 활성

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인접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인구 유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주거·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원도심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의병의 고장’이라는 월야면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린 복합 관광시설 ‘의월마루’를 조성해 의병 활동 전시·체험·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월야면 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사업 종합구상도

의월마루는 남일 심수택 의병을 중심으로 월야면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 운동의 역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

성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월야면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또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청년과 근로자 유입을 고려한 생활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주민 거점 시설인 ‘달빛그린 공유마루’에는 공유 주방, 창작 공간, 소규모 오피스 등이 들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야전통시장 상권 개선 사업을 추진해 미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음식 경연 프로그램 ‘월야 미식전’과 달빛야시장 등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마중물 사업과 함께 함께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부처 연계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병행해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여 나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 주민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월야면이 지역특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주민과 산단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만들어진 결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함평군 동북권 관문인 월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도·만·군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무안군, 시가지 제설작업 ‘구슬땀’ 김산 무안군수와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공직자들은 지난 2일 무안군청부터 무인운 중량로 등 주요 시가지와 마을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무안에는 전날 오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군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부서와 읍·면 상황근무를 실시했고 도로 13개 노선 180km에 대해 제설차량 13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무안군

영암 귀농·귀촌·창업·주거 수요 설계...빈집 정책 ‘한눈에’

군, 온라인 플랫폼 본격 운영...매물~지원사업 총망라

영암군은 최근 빈집 정보 제공에서 매물 거래 연결까지 아우르는 온라인 플랫폼 ‘영암군 빈집은행’ 운영에 돌입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풀고, 신뢰할 수 있는 빈집 정보를 제공해 주거·창업과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빈집은행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빈집은행은 올해 9월 마

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분산돼 있던 빈집 정보와 지역별 실태를 누구나 한 곳에서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온라인 포털에서 ‘영암군 홈페이지’ 주요서비스 모두보기 > 빈집은행’으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 빈집 개보수, 빈 집 정비(철거) 보상금 등 빈집 관련 각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안내해 현재 소유자와 미래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플랫폼을 활용해 영암군은 1등급 빈집을 선별해 매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 등록부터 거래 성사가 지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심 지역 빈집 매물이 새로 등록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신청 기능도 도입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지난해 말까지 영암군 빈집은행에 등록

된 빈집 매물은 총 7건이고, 이 중 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신환경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빈집 은행은 플랫폼을 넘어 영암군 빈집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창구다. 빈집 소유자와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 빈집은행에 빈집 정보를 등록하고 싶은 소유주는 주택관리팀 (061-470-245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현창균 기자 hck1342@gwangnam.co.kr

순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화

보안등·소방시설 등 개선

순천시가 ‘정원도시’를 넘어 ‘치유도시’라는 시정 목표로 시민의 주거공간까지 정책 범위를 넓힌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 다수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동주택을 도시 차원의 치유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은 총 184개 단지로, 이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가 122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보안등, 담장, 상·하수도 같은 공용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이 지속 제

기 때문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CCTV, 소방·방범 시설, 엘리베이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대시설 정비와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등 기본시설 개선도 일부 포함됐다.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치유도시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적용한 사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연도 기준 2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소비 촉진 ‘광양사랑상품권’ 판매 개시

1인당 50만원...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모

광양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를 개시한다.

올해 발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총 500억원 규모로, 시는 상품권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시는 또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50만원, 보유 한도를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상품권 판매 초기 종료를 방지하고 연중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분할 판매 방식도 개선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왔으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이끄는 민생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6200개소로 소상공인 경영안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지난 2022년 도내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구매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고흥,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

사업비 1900억 투입...2030년까지 미래형 거점 조성

고흥군은 해양수산업부가 공모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900억원(국비 1675억원, 지방비 22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군이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검토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준비 단계 전반에서 문금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남도와의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성과로 이어졌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수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우수한 수산 인프라와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고흥만 간척지 일원을 중심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고흥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수산 생산·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청년 어업인 유입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친화적 수산업 전환을 추진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지역 수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지역에는 국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과 함께 기술 실증, 전문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햇빛이 소득 되는 마을’ 영광 발전 선도

군, 태양광·에너지 이익 공유...마을 주민에 환원

영광군이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4개소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19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으며, 연간 약 256MWh의 전력 생산과 함께 연평균 약 1100만원의 발전 수익이 예상된다. 해당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공동급식, 경로잔치, 복지사업 등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향상에 재투자된다.

군은 사업비 50%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마을이 자립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올해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10개소로 확대 조성, 가구당 전기·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에너지바우처, 연탄구입비 지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 에너지 전환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광군 백수읍 자산3리 복지회관에서 들어선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 모두와 나누는 ‘에너지 공유부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과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도 마을단위 태양광 확대, 에너지 자립 정책, 공유부 기본소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에너지로 복지를 이끄는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이 곧 복지이자 지역 재생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고, 발전 이익이 공동체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